

# 심터의 장 점

마음의 촛불 ▶ 바쁜 매일수록 여유를 가져라  
고사성어 ▶ 축록[逐鹿]  
한권의 책 ▶ 문탁 씨의 특별한 월요일  
영화 이야기 ▶ ① 몬스터 ② 대단한 유혹  
연극 ▶ 경상도 거창 말 본 <자전거(自轉車)>

여유 없는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잠깐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곁의 크지 않은 곳에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전해주는

작은 것들이 있음을 느낀다.

자신의 삶을 넉넉하게 가꿀 줄 알며 인생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 항상 행복의 샘이 솟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



마음의 촛불

## 바쁜 매일수록 여유를 가져라

친지는 고요히 움직이지 않아도 그 운행은 쉬지 않는다. 해와 달은 밤낮으로 바빠 바뀌어도 그 광명은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한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톨스토이가 말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옛말이 있다. 한 마리의 제비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제비가 봄이 되어야만 오는 것도 사실이다. 제비뿐이 아니라 모든 땅이나 초목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고 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미리 아는 것과 같다. 사람은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

에 대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한다. 그것은 마치 날씨가 좋을 때 돛을 고치라는 영국의 속담과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어느 봄날, 모조록 굴에서 기어 나와 산책을 즐기던 여우가 정신 없이 바위에다 이빨만 갈고 있는 산돼지를 만났다. 여우가 말했다.

“이렇게 즐거운 봄날, 무엇 때문에 하릴없이 이빨만 갈고 있냐?”

그러나 산돼지는 들은 체도 않고 계속 이빨만 갈아댔다. 그런 산돼지의 모습이 더욱 보기 싫어 여우가 새삼 말을 걸었을 때 산돼지는 마지못한 듯 대답했다.

“여우야, 난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만약 사냥꾼에게 쫓기거나 사자와 싸우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빨을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솝우화 속의 산돼지처럼 준비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그래야만 바쁠 때 크게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환난이란 있을 수가 없다.

바쁠 때에 허둥지둥 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속담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바쁘게 쏘다니는 사람을 일컬어 ‘궁둥이에서 비파소리가 난다’고 하거나, ‘가을 중 싸대듯 한다’고 한다.

또 일을 하는데 있어 너무 성급히 서둘러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에게는 ‘가랑이에 두 다리를 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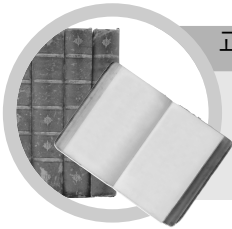


는다'고 편찬하기 일쑤다. 급히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이 남기는 말로 '귀뚜가 떨어졌으면 이 다 음에 와 찾지'라고 하는 말에서는 여유가 없는 어떤 상황의 극치를 보는 것만 같다.

한가하다는 것은 그대가 좋아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바쁜 꿀벌에게는 슬퍼할 겨를이 없다지 않는가. 다만 쉬지 말라. 살아 있는 그대는 그대 자신의 움직임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 움직임이 바로 그대의 여유다.

[이규호의 편저 「에세이 채근담」 中에서]



고사성어

## 축록[逐鹿]

일찍부터 이루어진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는 우리 정신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한 중국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다. 오늘날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식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사나 속어, 명언 중에서 가장 함축성 있고 풍자적인 주옥같은 명구들을 소개한다.

한나라 고조 11년, 조나라의 재상이었던 진희가 대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고조가 몸소 이를 토벌하러 나간 사이에 일찍이 진희와 짜고 있던 한신이 서울에서 군사를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일은 사전에 탄로가 나서 한신은 도리어 여후(呂后)와 소하(蕭何)에 의해 장악궁(長樂宮)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윽고 고조는 진희를 쳐부수고 돌아왔으나 한신의 죽음을 듣고는 감개가 무량했다. 자기에게 미칠 화가 없어진 것은 다행으로 생각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지난날에 이룩한 한신의 공적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고조는 여후에게 물었다.

“한신은 죽을 때 무슨 말을 하던고?”

“괴통의 계책을 듣지 않은 것이 원통하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괴통은 제나라의 언론가로서, 고조가 아직 항우와 천하를 다투고 있을 때 제왕이었던 한신에게 독립을 권한 사나이다.

“그렇겠다. 그 괴통을 잡아들이라.”

얼마 후 괴통은 제나라에서 붙들려 고조 앞에 끌려 나왔다.

“너는 한신에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권한 일이 있었지?”

“예. 확실히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못난이는 저의 책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후를 마치게 된 것이 옳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시키는 대로했더라면 폐하라 할지라도 쉽게 그를 치지 못했을 것이 옳습니다.”

괴통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고조는 크게 화가 났다.



“이놈을 끓는 물에 넣어 삶으라.”

무서운 형벌의 명령이 내려졌다.

“아니, 그건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이런 걸 원죄(怨罪)라 하옵니다. 저는 조금도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 너는 한신에게 모반을 권하지 않았느냐. 이보다 큰 죄가 또 있을까?”

“아니올시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진의 기강이 허물어져 천하가 난마와 같아지고 영웅호걸이 각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진이 그 사슴(鹿)을 잃어 버렸기로, 천하는 모두가 그 사슴을 쫓는(逐)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폐하는 가장 위대하셨기에 그 사슴을 쫓아 잡으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저 악당인 도척의 개가 요나라에 대고 짖었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요가 나뻐기 때문은 아닙니다. 개란 것은 주인 이외의 사람에게서는 짖는 것이니까요. 그 당시 저는 오직 한신만을 알고 폐하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한신편에 서서 폐하에게 짖어 댔던 것입니다. 천하가 어지러워지면 이를 통일하여 제위에 앉으려는 호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즉, 폐하께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해보려는 사람은 적지 않지만, 힘이 모자라 성공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일을 해내신 오늘, 전날 천하를 원했다 해서 모조리 가마에 넣어 삶아야 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러시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고조는 결국 괴통을 용서해 주었다.

‘사슴을 쫓는다’는 말의 본문은 ‘진이 사람을 잃으며 천하가 모두 이를 쫓다’로 되어 있다. 즉, 제위를 사슴에 비유한 것이다. ‘축록(逐鹿)이란 말은 큰 이익에 뜻을 둔다는 뜻으로 쓰인다.

〈희남자〉에 보면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를 보지 않으며, 천금(千金)의 화(貨)를 결(決)하는 자는 수량(銖兩)의 값을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한권의 책

## 몬탁 씨의 특별한 월요일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존재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 기자의 물음에 작가 페터 슈미트는 말한다. 어쩌면 〈몬탁 씨의 특별한 월요일〉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소설인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파산과 어머니의 부정, 악마의 미사와 근친상간, 거기에서 잉태된 악마의 자식, 그리고 아

이의 사산……. 열여섯 소년이 감당하기 힘든 성장의 드라마 뒤에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 자유의 지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을 인간 내면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릴 것 같아!”

화가가 되기를, 과학자가 되기를, 발레리나가 되기를, 대통령이 되기를 꿈꾸었던 그때의 우리는 지금 다들 어디에 있을까?

창 밖에서 눈발이 흠날려도 폭우가 쏟아져도 자욱한 안개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무실 안. 늘 쾌적하고 건조하기만 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이 똑같은 하루는 아닌지…….

그날그날 변함 없이 흘러가는 일상을 한 번에 날려버릴 굉장한 어떤 일이 생기기를, 내 인생을 백팔십도로 바꾸어놓을 무슨 일을 기대해보지만 돌아보면 늘 그 자리다.

이런저런 일들에 치여 바쁘게 지내다 가끔 한번 돌아보면 사춘기 그때가 오히려 가장 성숙한 때가 아니었나 싶다. 삶에 대해 가장 진지하고 가장 고민이 많았던…….

〈몬탁 씨의 특별한 월요일〉은 그런 사춘기 소년 마크의 이야기다. 이제 막 열여섯 살이 된 마크는 우리의 청소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소년이다. 가난한 예술가의 삶을 부모님이 찬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마크는 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부모님께서는 물리학자가 되겠다고 말한다. 부전공으로 미술을 해도 되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물리학을 공부하며 물질과 우주

의 심오한 비밀을 캐내고, 또 한편으론 미(美)와 감성의 세계에 들어서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는 오직 돈밖에 모르고(그러느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엉덩이에 석류만한 치질을 달고 다닐 정도이니),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사는 엄마 역시 환경운동을 하며 밖으로만 돌아 아이들에게는 별 신경을 쓰지 못한다(게다가 엄마는 나보다 세 살 위의 학교 선배와 사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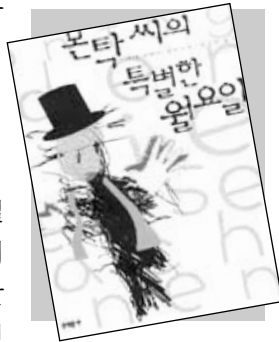
거기다 말썽꾸러기 늦둥이 막내 롤로와, 온통 제멋대로인 누나……. 식구들은 마크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 새로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어 학교 친구들도 거의 없는 데다 마크가 좋아하는 동급생 안네 마리의 오빠 파이퍼에게 얻어맞기까지 하는 등, 이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네 마

리와 파이퍼의 아버지는 아내와 아이들을 도끼로 내리쳐 죽이고 자신도 병원에서 자살을 했다고들 한다. 파이퍼를 따르는 몇몇 아이들을 제외하면 마크뿐 아니라 모두들 파이퍼를 피해 다닌다. 학교 생활도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

그런 마크에게 유일한 즐거움이 있다면 집 바로 옆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보슈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던 그곳에서 마크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 보슈의 그림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그가 바로 몬탁이다. 몬탁은 늘 조용하게 자리를 지키는 박물관의 안내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관람객들을 따라다니며 이런저런 주의를 준다거나 괜히 설명을 해준답시고 귀찮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다.

몬탁과의 대화를 통해 마크는 그림을 보는 법부



터 삶을 들여다보는 법,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는 이성과 오성을 통제하는 법, 단순한 관조가 아니라, 관조 이상의 관조로, 본인이 직접 자아를 통제하는 법을 마크에게 가르친다. 그를 통해 마크가 만난 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이다. 따져보면 다들 비슷할 것 같은 삶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탁과 만난 후 평온하기만 할 것 같던 마크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긴다. 돈밖에 모르던 아버지는 동업자에게 속아 파산하고, 갑작스런 아버지의 파산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자살기도 끝에 결국 돌아가시고, 안네 마리와의 하룻밤은 아이의 임신으로 이어진다(단 하룻밤이었을 뿐인데).

내 아이가 아닌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

의 아빠가 되기로 결심하는 마크. 열여섯 마크에게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크가 감당해내기엔 너무나도 큰 일들이다. 이제 마크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문탁 씨의 특별한 월요일〉은 힘겹기만 한 일상을 견뎌내고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성장통을 앓고 있는 어른들을 위한 성장의 드라마다.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일상에 끌려 다니는 우리에게 문탁은 충고한다.

“너를 통해, 너 자신을 통해, 너의 감성, 너의 사유, 너의 느낌을 통해, 우주는 의미와 가치가 충만한 것으로 지각되리라.”

[저자 : 페터슈미트 / 역자 : 안소현 /

출판사 : 문학동네(구)포도원(도)]



영화

## 몬스터

미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불행한 창녀였다. ‘린’은 어릴 적 꿈 많고 조숙한 아이였다. 그러나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13살 때부터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거리의 창녀로 나서게 된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동생들에게 쫓겨나 고향을 등진 리. 밤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 하루 하루를 연명하던 린은, 문득 망가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살하기로 결심한다.

첫번째 살인은 정당 방어였다.

비를 피해 마지막으로 목을 축이러 들어간 바. 린은 거기에서 천진한 소녀 ‘셀비’를 만나 가까워진다. 린은 셀비와 순진한 사랑에 빠지고 그럴수록 그녀에게 집착하게 된다.

돈이 필요했던 린이 다시 찾은 곳은 언제나 그랬듯이 거리 위. 거기에서 한 남자를 만나 숲속으로 들어서지만 남자는 린의 손을 묶은 채 가학적인 섹스를 벌이려고 한다. 가까스로 풀려난 린은 남자를 총으로 쏘 죽이고, 그후 집에서 도망 나온



셀비와 함께 싸구려 모텔을 전전하면서 도피 행각을 벌인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멈출 수 없었다.

더 이상 창녀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린, 셀비와



함께 지내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했지만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서는 번번히 냉대와 모욕만이 돌아올 뿐이다. 때를 같이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의문의 살인사건에 관한 기사.

그런데도 린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창녀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녀의 절망적인 처지와 셀비를 향한 애정은 계속해서 살인과 강도 행각을 불러온다. 결국 여섯명의 남자가 그녀의 손에 죽음을 맞았고, 불행하게도 그 중엔 퇴역 경찰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영화

## 대단한 유혹[Seducing Dr. LEWIS]

행복을 낚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이다.

캐나다 퀘벡 주에 위치한 한적하고 외딴 섬 <생마리아>. 15년을 한결같이 의사를 기다려온 이 작

은 마을에 어느 날, 몬트리올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하던 '루이스'가 우연히 이 섬을 방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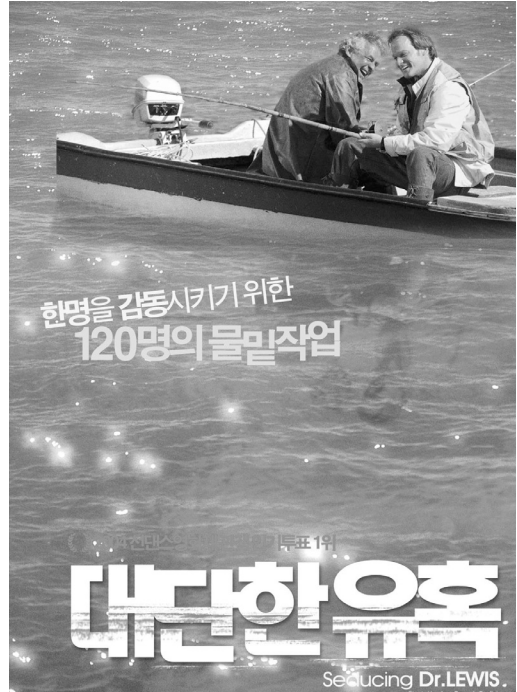
한달 꼬셔서 5년 계약 맺기, 상상만 해도 행복한 연극이 시작된다.

제발로 들어온 의사를 놓칠소냐. 자칭 시장 노릇을 하는 '저맹'과 마을 사람들은 루이스를 꼬시기 위한 작전에 들어간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한달.

목표는? 루이스를 이 섬과 사랑에 빠지게 해서 5년 동안 마을의 의사가 되어준다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때부터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마을전체의 거짓말 같은 연극이 시작된다.

의사 루이스에 대한 정보 입수를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는가하면, 행복한 기대감을 주기 위해 그가 다니는 길목에 매일 1달러를 놓아두고, 그가 낚시할 때면 낚시줄에 대어를 달아주는 물밑작업까지 기꺼이 해주는 마을 사람들. 이모든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루이스는 점점 이 섬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한달이 거의 채워질 무렵, 루이스는 이 모든 행복이 거짓이었음을 알게되는데…….



한명을 감동시키기 위한  
120명의 물밑작업

대한민국 대표 1위  
**대한한유혹**

Seducing Dr.LEWIS.



연극

## 경상도 거창 말 본 <자전거(自轉車)>

### ■ 기획의도

지난 3월, 극장 아롱구지에서 공연하였던 <자전거>를 본 한 어른께서 '6·25가 생생히 살아있는 연극 한편에 눈을 땔 수 없었고, 가슴이 미어지는 울림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6·25를 겪지 못한 어린이들에게겐 잊혀져 가는 역사의 한 부분일지라도 그 분들을 아직까지도 민족상잔의 아픈 지난날인 것이다. 나의 할머니 할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겪으신 일, 불과 55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일이 그저 역사책에서 보는 것으로 그만인 일이 되어버리는 걸까?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역사, 곧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 버리는 건 아닌지.

지금 우리는 PC화, 정보화, 미분화의 말죽이기 속에서 사회는 이미 전국이 일일권에 든지 오래고 이제는 같은 세대에 이름의 말이 지방색을 잃고



일체화되어 고유의 무늬, 냄새, 색깔, 떨림을 잃어 버리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이는 우리의 전통 성향, 고유 언어도 뚜렷한 표현력을 잃고 국적을 알 수 없는 말로 뒤바뀌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시기에 극단 木化는 우리말이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어로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배우들의 소리와 몸짓을 빌어 그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최근 4·3을 다뤄 제주어로 공연하였던 <앞산아 당겨라 오금아 밀어라> 외에도 <태> <부자유친> <천년의 수인> 등 잊혀지고 있는 역사를 재조명하고 더불어 우리언어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리가 되었다. 2004년 6월 자꾸 우리의 것을 잃어 버리는 자신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극단 木化지난 공연에 호평을 받았던 2004 경상도 거창 말 본 <자전거>를 재공연을 준비했다.

잊혀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옛날 어른들이 콩, 감자 등을 걷을 때 두더지똥, 까치 똥으로 남겨 두었던 여유로운 심성을 느낄 수 있는 시골의 키, 삼태기 등의 소품과 함께 갯막의 할아버지, 술 나르던 아저씨들이 내뿜는 구수한 사투리로 지난 그 날을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작품내용

<자전거>는 윤서기가 동료인 구서기에게 42일간의 결근 사유를 밝히는 자신의 결근계를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황당하고 비합리적인 사유서를 본 구서기에게 윤서기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 날 밤'에 겪었던 현실과 환영이 엇갈린 체험담을 들려주면서 전개된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는 인과성이 있는 즐거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윤서기의 의식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자유자재로 뒤바뀐다. 윤서기의 체험 내용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사건이다. 6·25 때 반동분자로 몰린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군청 내 등기소 건물에 갇히게 되었고, 집단 학살당한 사건으로 인근에는 집집마다 소위 '등기소 제삿날'이 같은 날짜에 겹쳐있다. 그 날이 되면 예외 없이 당숙이 나타나서 한바탕 난리를 치르게 되는데, 그 까닭은 집단 학살의 방화자가 바로 당숙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 갇혔던 당숙은 인민군의 명령에 복종하여 살아남았던 것이다.

둘째는 문둥이네 가족들의 이야기다. 산골짜기에서 외롭게 살아온 문둥이 부부는 네 아이를 낳았으나, 그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밝은 생활을 열어주기 위해 모두 남의 양자, 양녀로 입적시키는데 아이들이 입적된 집은 거위집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근의 한씨네 집이다. 네 아이 중 장녀와 차녀는 그들이 문둥이의 소생임을 알고 자신들의 처지와 환경에 무서움과 저주감을 느끼고 있다. 어느 날 장녀는 동생만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잊고 살라고 차녀를 집에서 내보내고 자신은 솔매 집으로 가서 불을 지른다. 집을 나간 차녀는 모지 근처를 배회하고 문둥이 엄마는 화재로 끝내 숨지게 된다.

공교롭게도 이상의 두 사건은 모두 화재·방화와 관련을 맺고 있고 밤의 어두움 속에서 겪는 체험으로 되어 있어 강렬한 인상과 짙은 여운을 느끼게 해 준다.

이 밖에도 자전거를 타고 밤늦게 읍내에서 돌아오다가 웅덩이에 빠져 죽은 할아버지의 이야기, 인민군이 물러가고 수복할 때 자전거에 태극기 꽂고 달려온 이야기, 밤중에 황소가 우리를 뛰쳐나와 달리는 바람에 혼비백산한 이야기 등이 전개되고 때로는 죽은 사람의 모습이 환영처럼 나타난다.

작품 자체의 구조가 마치 괴기담을 형상화시킨 느낌을 주고 있으나 단순한 설화에 머물지 않고



그 속에 우리 한국인들이 겪는 온갖 수난과 어두운 운명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응축되어 마치 우리 민족의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연상시키게도 한다.

■ 공연특징

사투리에는 그 지역의 자연적 환경과 그 속에서 엮여온 역사, 우리의 숨결이 고유의 향토색을 띠며 담겨져 있다. 이러한 특색이 짙게 베어져 있는 작품으로 오태석 작 <자전거>를 선택하게 되었다.

<자전거>는 어느 지방의 말로 의역이 되더라도 한국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공통분모의 작품인 것이다.

<자전거>의 탁월한 형식적 특징은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시점을 일치시킨 데 있다. 즉 오늘과 40여일 전과 1950년대와, 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의 생활 속에 깃든 밤의 생활풍경을 한 시점에 모아놓고 있는 점이다.

이 밤의 풍경들은 사실 한국인의 정서 밑바닥에 주요한 기층을 이루고 있으며 그 영향은 낮의 생활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 연극은 오늘날 산업화·도시화·집중화된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체험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지만 그 같은 풍경들을 어렸을 때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그리움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놀람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문둥이에 대한 공포는 한국인의 의식 기층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이미지는 한국인의 어떤 운명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6·25의 상처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는 낙인인데 이 극에서는 그 비극의 책임을 외부(타자)에 돌리지 않고 당숙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서양문학에서는 인생을 여로로 비유하는 것이 고전에서부터 상례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윤서기의 하룻밤 여로를 가지고 한국인의 특수한 생활체험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다.

오태석의 <자전거>는 작가의 과거회상이 전혀 감상적인 여운을 남기지 않고 매우 객관적이면서 정교한 언어로 진술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적이고 간명한 언어로 이루어진 이 극이 보고 듣는 이의 마음속에 공명을 크게 올려주는 것은 한국인의 참모습,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의 피상적 묘사를 뛰어넘어 그 내면세계를 정확히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점이 극단 木化에서 <자전거>를 두 번째 방언 연극의 작품으로 선택한 이유다.

△ 일자: 2004년 6월 4일~7월 4일

△ 시간: 화~금요일 19시 30분 토요일 16시 30분, 19시 30분, 일요일 15시, 18시(월요일 쉼)

△ 장소: 극장 아롱구지

△ 예매처: 극장 아롱구지 [www.arong.com](http://www.arong.com),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http://www.ticketlink.co.kr), 티켓파크 1588-1555 [www.ticketpark.com](http://www.ticketpark.com)

△ 주관: 극단 목화 레퍼터리 컴퍼니

△ 후원: 목화 후원회, 백조씨크

△ 문의: 극단 목화 02-745-3966, 3967